

뉴스 사회 경기

도시재생의 새 주체 ... 청년이 마을을 바꾼다

◆수원

희망동지 청년협동조합
 변천과정 미래유산 D·B
 플래그십 홍보관 운영도
 안산◆

지역 문화·예술자원 발굴
 대부도 상인과 공동 진행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기

2018년 06월 06일 00:05 수요일



▲ 수원 '희망동지 청년협동조합' 청년들의 활동모습. /사진제공= 희망동지조합



▲ 안산 대부도 '섬자리' 청년들의 활동모습. /사진제공=섬자리

"청년들이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원과 안산지역 청년들이 국가사업에 참여, 직접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낙후된 지역에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상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낡은 시설물을 전면 철거한 뒤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해당 장소만이 갖는 '역사·문화성 보존'을 지향한다.

방식은 '주민주도', '지역참여'. 주민이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셈이다.

지자체는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착안해 실행에 옮긴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팀을 맺어 재생사업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모집한 바 있다.

공모 결과 선정된 전국 33개 팀 중 6개 팀이 경기도에서 나왔다.

수원·안양·안산·평택·광주 등 5개 지역이다. 이중 특히 청년들이 사업에 뛰어든 수원과 안산지역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참여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대상이나, 직업생활 등으로 청년 참여율은 저조하다.

청년들이 마을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실제 변화의 중심에 선 케이스는 드물다.

수원에선 '희망동지 청년협동조합(이하 희망동지)'의 팀원이 주인공이다.

희망동지는 앞서 1월 청년세대가 맘껏 역량을 펼 수 있는 지역사회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설립된 실제 조합이다.

문상철(38) 대표를 비롯해 김기강(31), 이노아(27·여)씨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희망동지는 변천과정에 놓인 마을과 사람들의 삶 자체를 '기록화'하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과제로 제출했다.

기록될 수 없는 무형의 관계, 감정, 활동들까지 데이터화해 미래세대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청년 문화·예술가에게 필요한 지원과 활동 공간 알리를 제공하는 등의 세부사업도 있다.

청년들은 향후 재생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 플래그십 홍보관'을 운영,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전이지만, 최종 목표는 당차다.

청년들이 사업을 이끈 성공적인 사례를 반드시 실현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산의 경우 대부도 섬에 사는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박진(35), 신현무(36)씨 등 청년들이 대안여행사를 만들어 직접 대부도의 '진면목(연안생활문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명 '청년 여행사'. 이들은 기존에 '섬자리'라는 지역공동체이자 문화공간을 운영했다.

대부도의 쇠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간절함이 이 같은 기획을 구상했다.

대부도는 어느 섬들과 마찬가지로 개발바람에 특유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그로 인해 젊은 인구가 마을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들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역사·예술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그간 활동에서 마음을 함께한 지역상인 등과 힘을 모아 진행하기로 했다.

순수 지역자원을 활용해 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역 재생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까지도 기대된다.

'지역청년과 주민의 힘으로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팀의 최종 목표이자 꿈이다.

최정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은 "직접 청년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 제안하는 과정은 도시재생뉴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해결에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참여가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